

“신생팀 패기로 홈팬들에게 첫 승 선물”



19일 광주 페퍼스타디움 개막전에 출전하는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배구단

<AI 페퍼스 배구단 제공>

19일 오후 7시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역사적인 창단 첫 경기

김형실 감독 “구도 광주 배구 중흥 기치...신나는 경기로 보답” 김연자 미니콘서트·입장객 전원 배구공 증정 개막행사 ‘풍성’



여자 프로배구 제7구단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신생팀 패기로 역사적인 홈 개막전 승리에 도전한다.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배구단은 오는 19일 홈 구장인 광주 페퍼스타디움(영주종합체육관)에서 창단 첫 경기를 펼친다. AI 페퍼스의 2021-2022 V-리그의 첫 개막전은 19일 오후 7시에 시작하며, 상대는 KGC인삼공사다. 홈 개막전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에 따라 20% 관중 입

장 제한을 준수해, 약 600석의 좌석을 개방하며 스타디움 내 1-3층 중 1층과 2층만 사용한다. 향후 관중 입장 계획은 방역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AI 페퍼스는 배구단 창단 이래 첫 경기를 기념하는 개막행사를 오후 6시부터 시작한다. 본 행사에는 광주 출신 대표 트로트 가수 김연자의 미니콘서트를 비롯해, 구단주 장매튜 대표의 인사, 이음섭 광주시장의 환영사와 가수 김태우의 애국가 제창이 예정되어 있으며, 구단 및 선수 소개 영상이 공

개된다. 개막전 입장객 전원에게는 AI 페퍼스 첫 개막을 기념해 AI 페퍼스 배구공을 증정할 예정이다. 김형실 AI 페퍼스 감독은 “개막전을 연고지인 광주의 홈 경기장에서 치르는 만큼 광주 배구 팬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이 절실하며, 신생팀으로서 연고 지역의 많은 분이 배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나는 경기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장 이한비는 “개막전을 통해 광주 팬들을 만날 수 있게 돼 너무 기쁘고 뜻깊으며, 매 경기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하며 “AI 페퍼스를 향한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의 V리그 개막 첫 경기는 KBS N Sports와 네이버 스포츠를 통해 오후 7시부터 생중계될 예정이다. /박희중기자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 대한민국체육상 수상



대한민국 체육상 지도상을 수상한 심재용 감독이 대한육상연맹 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대한육상연맹 김둔순 사무국장, 심재용 감독, 대한육상연맹 김정식 부장.

심재용 광주시청 육상팀 감독은 지난 15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59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체육상 지도상을 수상했다. 1963년 제정돼 올해로 59번째를 맞은 ‘대한민국체육상’은 매년 우수선수 및 지도자, 체육진흥 및 연구 등 총 9개 분야(대통령상 7개 부문, 문체부 장관상 1개 부문, 장관감사장 1개 부문)에서 공적이 있는 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는 심재용 감독 외에 송중국 경희대 교수(연구상), 대한하키협

회 신정희 부회장(공로상), 대구시체육회 박영기 회장(진흥상), 광주시청 사격팀 이지석(극복상), 주몽학교 이혜정 교사(특수체육상), 한운수 경북대학교 교수(심판상), 기계체조 국가대표 류성현 선수의 아버지 류정훈 씨·다이빙 김영남, 김영택, 김영호 선수의 어머니 정영숙 씨(이상 체육인의 장한 아버지상) 등이다. 대한민국체육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1천만 원이, ‘체육인의 장한 아버지상’ 수상자에게는 감사패와 소정의 부상이 수여됐다. /박희중기자



이정민이 17일 열린 ‘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 최종라운드에서 우승 후 축하 꽃잎 세례를 받고 있다. <KLPGA 제공>

최종일 ‘버디 10개’ 이정민 초대 ‘공격 골프 여왕’ 우뚝

이정민(29)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5년 7개월 만에 우승하며 초대 ‘공격 골프 여왕’에 올랐다. 이정민은 17일 열린 KLPGA투어 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10개를 뽑아내는 맹타를 휘둘러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는 KLPGA투어 사상 처음으로 변형 스테이بل포드 방식으로 치러졌다. 변형 스테이بل포드 방식은 엘버트로 스 8점, 이글 5점, 버디 2점, 파 0점, 보기 -1점, 더블보기 이상 -3점을 매겨 순위를 가린다. 같은 타수라도 버디가 많은 선수가 훨씬 유리하기에 공격적 플레이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선두 박민지(23)에 8점 뒤진 채 최종라운드에서 나선 이정민은 버디 10개에 보기 1개로 무려 19점을 쏟아내는 끝에 최종합계 51점으로 경기를 뒤집었다. 2016년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통산 8승을 달성한 뒤 긴 침묵에 빠졌던 이정민은 47점의 안나민(25)을 4점 차로 따돌리고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연합뉴스

“스포츠에 장애는 없다, 투혼은 있다” 장애인체전 출전 광주선수단 필승 결단식



이음섭 광주시장이 지난 15일 서구 장애인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광주선수단 결단식’에서 체전 단기를 흔들며 광주선수단 선전을 기원하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광주 빛낸 패럴림픽 스타들 ‘그 감동 다시한번’

FC광주엔젤 2연패·육상 김하은·이승훈 3관왕 도전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다시 한번 감동을 선사한다. 광주시에장애인체육회는 17일 “지난 15일 광주시에장애인체육센터에서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광주시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단식은 코로나19로 출전 선수들의 안전을 고려해 이음섭 광주시

장(광주시장애인체육회장), 김용집 광주시에회의장, 자치구장애인체육회장, 경기단체장, 선수단 대표 등 49명의 최소 인원만 참석해 열렸다. 광주선수단은 오는 20일부터 6일간 경북 일원에서 펼쳐지는 전국장애인체전에 탁구 등 총 22개 종목에 411명의 선수 및 임원들이 출전한다. 이번 체전에서 광주선수단은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한 만큼 모든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구 지적부 7연패(31-37회 장애인

체전)을 달성했던 FC광주엔젤팀이 제39회 대회에 이어 2연패 달성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이고, 광주시에인 육상의 김빛 남매 김하은·이승훈은 시각(스포츠등급T12) 100m·200m·400m 등에서 3관왕에 도전한다. 2020 도쿄 패럴림픽에서 맹활약하며 감동을 안긴 빛고을 태극전사들도 대거 출전한다. 도쿄 패럴림픽에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던 탁구 김영건과 서수연 그리고 양국 김옥금, 사격 이지석은 패럴림픽의 아쉬움을 이번 체전에서는 반드시 금메달로 보답한다는 각오다. /박희중기자

광주 사격 김근수 3관왕 “출발이 좋다”

사전경기 사격 금3·은1·동2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 중인 광주선수단이 금빛 총성을 울렸다. 광주선수단은 지난 16일부터 사전경기로 치러진 사격에서 금빛 낭보를 전했다. 흥성 공기소총 입사 R4 개인전 SH2에서는 김근수가 252.9점으로 은메달

을, 박동안이 231.3점으로 동메달을 추가했다. 17일 열린 흥성 공기소총 복사 R5 단체인 SH2(선수부)에서는 김근수·박동안·이지석이 1천904.3점으로 금메달을 합작했다. 이 기록은 종전 한국신기록(1천901.9점)과 대회신기록(1897.7점)을 경신한 또 하나의 대기록이다.

을, 박동안이 231.3점으로 동메달을 추가했다. 17일 열린 흥성 공기소총 복사 R5 단체인 SH2(선수부)에서는 김근수·박동안·이지석이 1천904.3점으로 금메달을 합작했다. 이 기록은 종전 한국신기록(1천901.9점)과 대회신기록(1897.7점)을 경신한 또 하나의 대기록이다. /박희중기자

을, 박동안이 231.3점으로 동메달을 추가했다. 17일 열린 흥성 공기소총 복사 R5 단체인 SH2(선수부)에서는 김근수·박동안·이지석이 1천904.3점으로 금메달을 합작했다. 이 기록은 종전 한국신기록(1천901.9점)과 대회신기록(1897.7점)을 경신한 또 하나의 대기록이다. /박희중기자



17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광주FC와 강원FC의 K리그1 28라운드 순연경기. 광주FC 이순민이 상대 선수와 헤더를 다투고 있다. <광주FC 제공>

역전패 광주 강등권 위기

원정 강원전 임원상 선제골 불구 내리 2골 내줘



프로축구 광주FC가 강원 원정에서 뼈아픈 역전패를 당하며 강등 위기에 몰렸다. 광주 17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원원 K리그1 2021 28라운드 순연 경기에서 강원FC에게 1대2로 패했다. 5경기 연속 패배를 당한 광주 8승5무19패(승점 29)를 기록하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10위 FC서울, 11위 성남FC(승점 34)와의 승점 차는 5점이다. 광주 17일 2번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강원을 상대로 강등권 탈출을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선제골도 광주의 몫이었다. 전반 22분 이민기의 오버헤드 패스가 강원 수비 사이로 떨어졌고, 임원상이 이를 잡았다. 임원상은 정확한 원발 슈팅으로 득점을 이뤄냈다. 공세를 이어가던 광주는 전반 종료 직전 김동현에게 동점골을 내주며 전반을 어렵게 1대1로 마쳤다. /박희중기자

전열을 정비한 광주는 후반전 반격에 나섰다. 이순민이 후반 3분 시도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이 살짝 벗겨졌다. 광주는 후반 12분 김영민에게 역전 실점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1부 잔류를 위해서는 승리로 반전이 절실했던 광주는 이후 김종우와 임지성을 투입하며 공격적으로 승부를 걸었다. 동점이 절실한 광주는 후반 36분 임지성이 회심의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으나 옆 구멍을 때렸다. 마지막 카드로 두현석을 투입한 광주는 후반 44분 그의 슈팅으로 결정적 기회를 잡았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다. 광주는 교체카드 5장을 모두 써가면서 만회골을 노렸지만 끝내 동점골은 터지지 않았다. 김호영 광주FC 감독은 경기 끝난 후 “어려운 강원 원정에서 선제 득점으로 기세를 잡았던 건 좋았지만 세트피스에서의 집중력 부재가 아쉬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음 경기 승리를 위해 준비하겠다”고 경기 소감을 밝혔다. /박희중기자